

세계 농산물 교역 전망 (II)*

최익창 · 이정민 · 김대석

2. 품목별 교역전망(계속)

쌀

세계 쌀 교역량은 2019년까지 2.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세계 쌀 교역량은 2006년보다 23% 증가한 3,800만 톤으로 전망된다.

세계 쌀 교역량은 2019년까지 2.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세계 쌀 교역량은 2006년보다 23% 증가한 3,800만 톤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증가 원인은 개발도상국가의 인구증가에 따른 수요 상승 때문이다. 쌀의 소비량 대비 교역량 비율은 7%로써 이는 다른 곡물보다 현저히 낮은 값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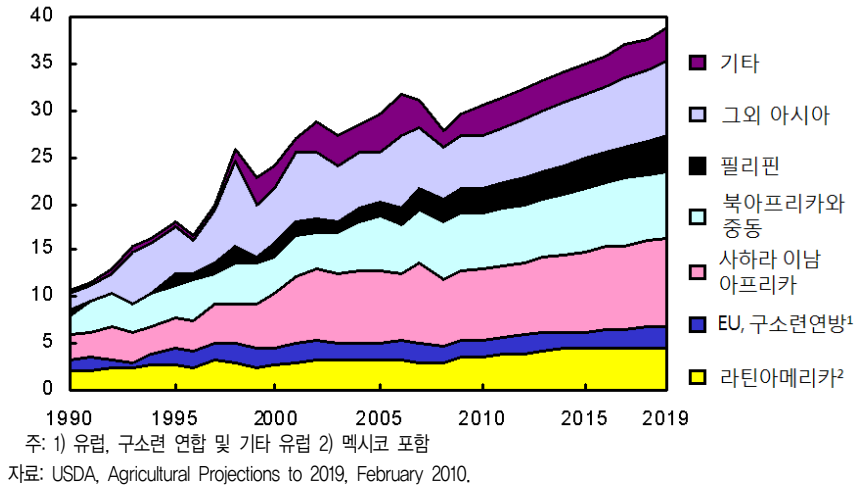
장립종은 세계 쌀시장 교역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교역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단립종은 세계 교역량의 10~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동아시아가 최대 시장이다. 향미(바스마티 및 재스민 종)가 나머지 쌀 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필리핀, 이란, EU, 사우디 아라비아, 방글라데시, 이라크가 최대 쌀 수입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각국의 쌀 수입량은 130만 톤 이상으로 전망된다. 이들 국가가 쌀 생산량을 더 이상 증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세계 쌀 교역량의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본 내용은 미국 농무부(USDA)가 발간한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19' 중 세계 농산물 교역 전망 보고서 및 데이터를 번역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익창, 이정민, 김대석 연구원이 작성하였다(cic@krei.re.kr, 02-3299-4354, fantom99@krei.re.kr, 02-3299-4198, sorihunt@krei.re.kr, 02-3299-4127).

그림 1 세계 쌀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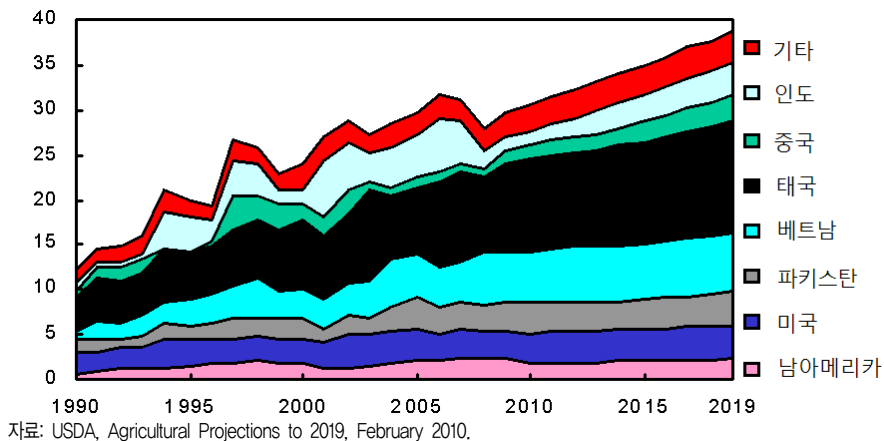
단위: 백만 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와 중동은 인구증가 및 기후 변화로 인한 쌀 생산량 감소로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인프라 및 자원 부족으로 사하라 이남 지역의 쌀 생산량은 증가하기 힘든 상황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2010~2019년 세계 쌀 교역량 증가분의 24%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쌀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세계 쌀 수출

단위: 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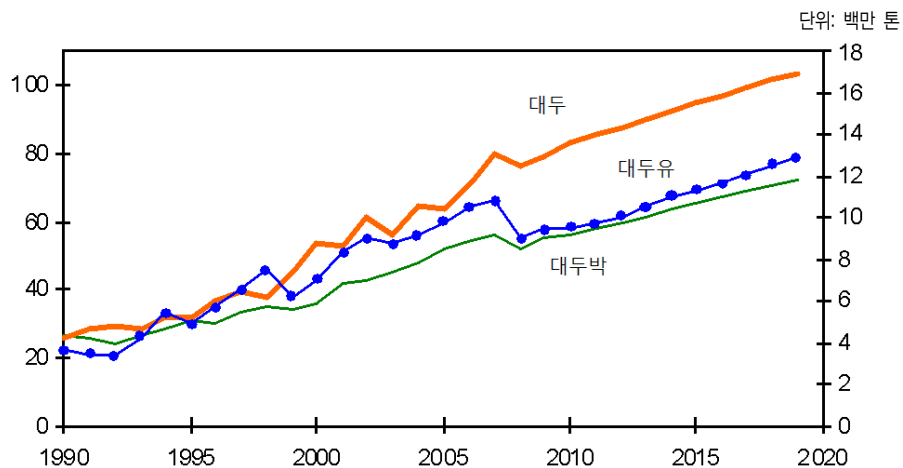
2019년까지 아시아지역은 최대 쌀 수출지역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태국 및 베트남은 세계 최대 쌀 수출국으로서, 향후에도 세계 쌀 교역량의 50%와 쌀 수출 증가분의 40%를 점유할 것으로 보인다. 태국의 쌀 수출량은 260만 톤에서 2019년 1,200만 톤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태국의 쌀 재배지역 및 산출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의 수출은 550만 톤에서 680만 톤까지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1990년대부터 세계 쌀 교역량의 3/4를 차지하는 수출국이었으나, 재고 변동과 정부정책 변화로 인해 지위가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인도가 2008년 비 바스마티¹⁾중 재배를 금지하면서 최근 쌀 수출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쌀 수출금지 조치가 해제될 경우 2019년까지 인도의 쌀 수출량은 380만 톤까지 늘어날 수 있다.

대두, 대두박, 대두유

그림 3 세계 교역 전망: 대두, 대두박, 대두유



자료: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19, February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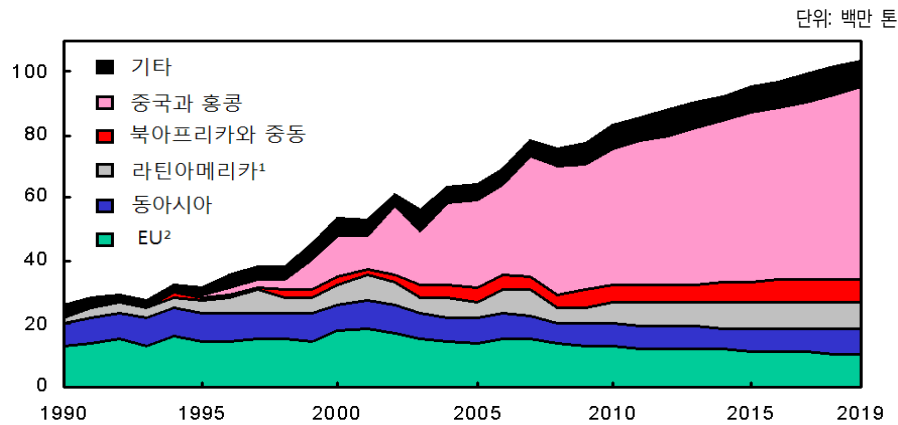
아르헨티나, 브라질, 미국은 향후 대두 및 대두박 수출량의 89%를 점유할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미국은 향후 대두 및 대두박 수출량의 89%를 점유할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곡물 정책 혼란으로 농부들이 기타 작물보다는 콩 재배를 선호하고 있으며, 목초지역 일부분도 콩 재배로 돌아선 결과 세계 대두 및 대두 수출량의 34%를 점유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의 콩 생산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사료용 수요 증가로 콩 수출량은 30%선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세계 대두 및 대두시장 점유율은 현재의 29%에서 2019년 26%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1) 바스마티(basmati): 낱알이 길고 향내가 나는 쌀

대두

그림 4 세계 대두 수입



주: 1) 멕시코 포함, 2) EU 내 교역 불포함

자료: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19, February 2010.

향후 세계 대두시장 교역량은 25% 증가한 2,100만 톤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U는 2002년까지 주요 대두 수입국이었으나, 사료용 곡물박 및 평지박(rapeseed meal), 대두박 수입 증가로 대두 수입량은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두 수입은 급속도로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세계 교역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옥수수 및 대두의 생산 혹은 수입의 상충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향후 중국의 정책은 옥수수는 국내 생산하되, 대두는 수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향후 중국의 대두 수입량은 전세계 교역량의 85%(2,08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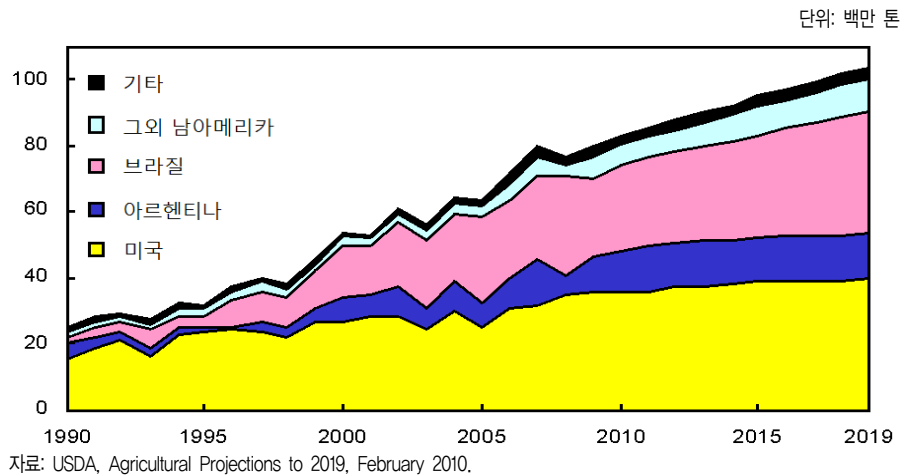
동아시아 국가(일본, 한국, 대만)의 대두 수입량은 육류 수입량과 생산량 사이의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이 지역의 사료용 대두박 및 유지박의 수입은 육류 소비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크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대두 수출국가(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들이 세계 교역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수출국가(우루과이, 파라과이, 볼리비아)의 등장으로 이들 국가의 점유율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은 대두 및 대두 생산물의 주요 수출국이나, 대두 녹병이 만연하여 생산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료용 대두박과 식용 유지, 바이오 디젤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두 생산의 이익 폭이 다른 작물보다 크게 상승하였다. 옥수수 재배지역으로 이용되던 브라질 남부지역이 대두 생산으로 바뀌고 있어 미국과의 옥수수 수

향후 세계 대두시장
교역량은 25% 증가
한 2,100만 톤에 이
를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세계 대두 수출



출 경쟁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라도스 지역 및 레갈 아마존 지역의 대두 생산량 증가로 브라질의 대두 생산 면적은 매년 3%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대두 수출량은 4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의 대두 수출관세율은 대두 가공품보다 높아 가공품 수출이 더 많다. 그러나 대두수요가 증가하여 아르헨티나의 대두 수출량은 향후 1,200만 톤까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루과이, 파라과이, 볼리비아 같은 남미국가의 대두 수출량은 45% 증가한 1,000만 톤으로 전망된다.

대두박

세계 대두박 교역량은 2019년까지 28% 증가한 1,700만 톤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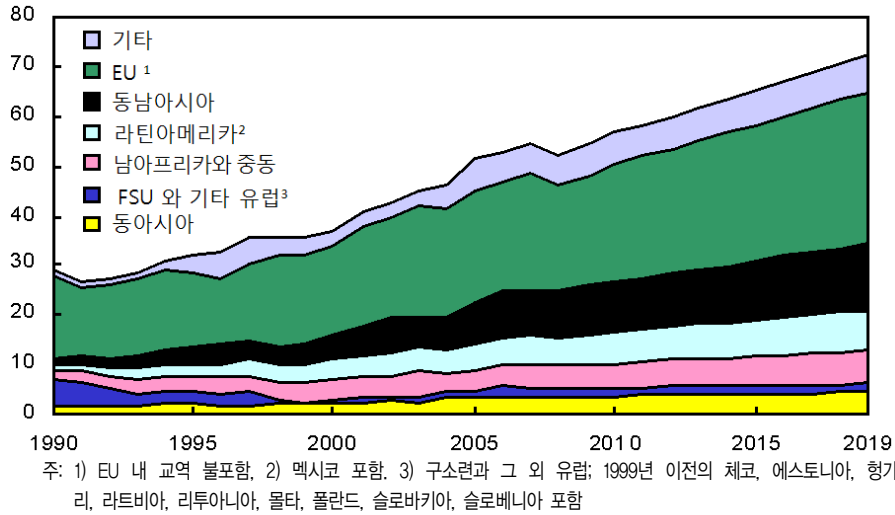
세계 대두박 교역량은 2019년까지 28% 증가한 1,700만 톤으로 예상된다. 가축 사료용 수요와 유지류 생산 정체, 상대적으로 낮은 거래가격 등으로 대두박 수요는 크게 증가하였다. 대두박 가격이 대두 및 곡물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가축 사료용으로 대두박은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EU는 국내 사료용 곡물 및 유지 작물 생산에도 불구하고 향후 세계 최대 대두박 수입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U의 바이오연료 산업 성장에 따라 유지박이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수 있으나, 사료에 이용되기에는 양이 충분하지 않다. 그 결과 EU의 대두박 수입은 세계 교역시장의 45%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유 및 유가공품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대두박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은 가축 사료용 대두박 수입이 증가하고, 구소련 연방국의 대두박 수입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육류 생산량 증가로 인해 대두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 세계 대두박 수입

단위: 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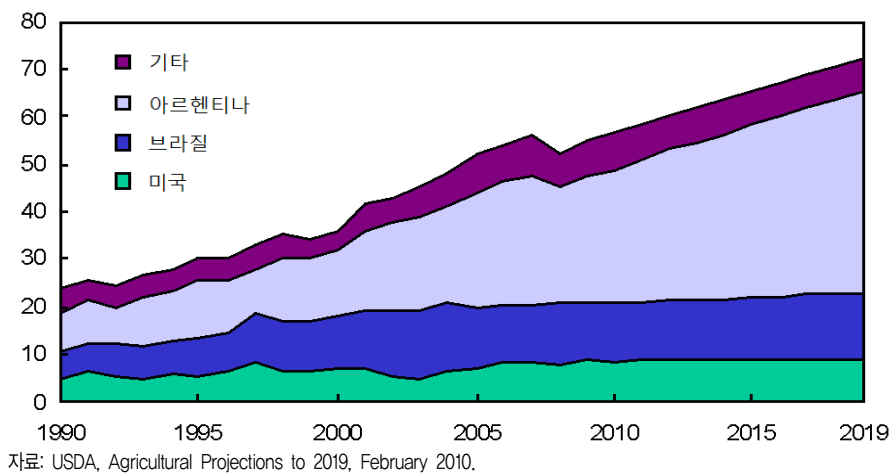


아르헨티나, 브라질, 미국은 세계 대두박 시장에서의 주요한 수출국일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 세계 대두박 무역 중 90%의 비중을 차지한다. 아르헨티나는 주요 대두박 수출 국가로,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60%까지 증가하였다.

아르헨티나는 대두가공품에 비해 대두에 높은 수출관세를 부과하여 자국의 유

그림 7 세계 대두박 수출

단위: 백만 톤



지작물의 가공 능력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 및 남아메리카 국가에서 대두를 수입하여 대두가공 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가금류와 육류 분야의 빠른 성장으로 자국내 사료 소비가 급성장하고 있어, 대두박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더구나 브라질의 대두박 가공 능력은 대두의 생산 증대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브라질의 수출 관세는 대두제품의 수출보다 대두의 수출에 더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이 전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25%에서 2019년에는 19%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대두박 수출은 매우 천천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9백만 톤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 세계 대두무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14%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9년에는 12%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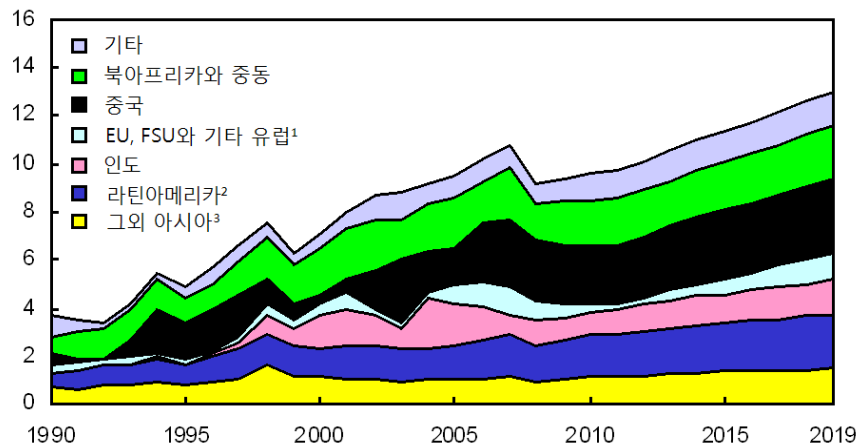
인도의 대두박 수출은 2009년 3백7십만 톤에서 2019년에는 2백3십만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자국의 가금류, 달걀, 우유제품 소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인도의 대두박 공급이 대부분 자국에서 소비되기 때문이다.

EU는 사료용 대두박의 비중이 비교적 작지만 꾸준히 러시아와 그 외 동유럽국가로 수출을 하고 있다.

대두유

그림 8 세계 대두유 수입

단위: 백만 톤



주: 1) EU, 구소련연방 및 기타 유럽, 2) 멕시코 포함, 3) 인도와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자료: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19, February 2010.

세계 대두유 수입은 식용과 바이오연료 제품에 필요한 대두유의 수요 증가로 인해

예상보다 3백4십만 톤(35%) 증가하였다. 중국과 인도는 세계시장에서 주요 대두유 수입국이며 주로 음식 조리용으로 소비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두 국가의 수입 물량의 합은 세계총수입의 1/3 이상이였다. 대두유 교역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전 세계 식물성오일 무역의 선두자리를 놓고 야자유와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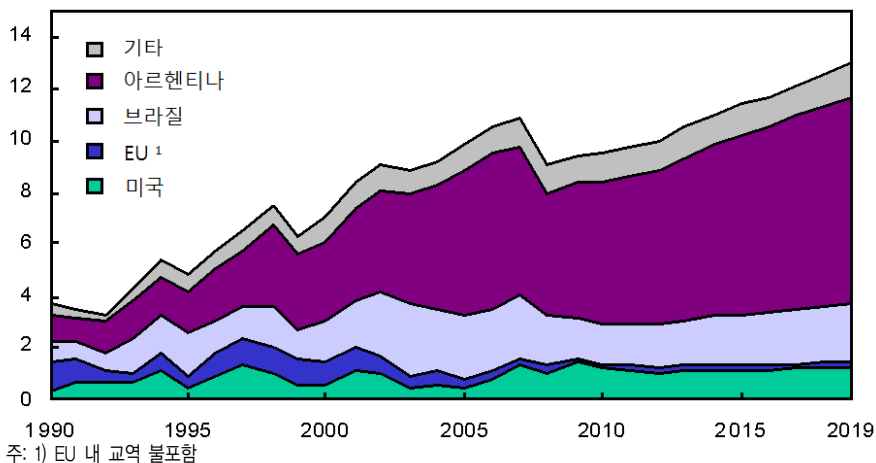
라틴아메리카, 남아프리카, 중동지역의 소득과 인구의 증가는 대두유의 수요와 수입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인도는 대두유 수입이 많은데, 그 이유는 식물성 기름의 국내 수요 급증과 유지작물의 국내 생산량 증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불규칙한 생육 환경, 투입재 사용 저조, 낮은 단수로 인도의 유지작물 생산량 증가가 어렵다. 국제 가격의 상승으로 인도의 식용유 수입 관세는 2008년 철폐된 바 있다. 향후 십년간 대두유 관세는 45%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며, 다른 주요 수입국의 관세는 75~85% 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식물성 기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토지사용에 있어 다른 작물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작물 재배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

세계 대두유 수입은 식용과 바이오연료 제품에 필요한 대두유 수요 증가로 인해 예상보다 3백4십만 톤(35%) 증가하였다.

그림 9 세계 대두유 수출

단위: 백만 톤



자료: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19, February 2010.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대두유 수출에서 75~80%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2008년과 2009년에는 작황이 좋지 못해 73%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나 전통적 수출국인 만큼 전망기간 동안 다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헨티나는 식용유 가공능력이 뛰어나고, 국내 대두유 시장이 크지 않으며, 대두보다 대두를 가공한 제품의 수출 관세가 낮기 때문에 대두유의 주요 수출국으로 자리잡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북동부의 불모지 개척과 이모작 및 방목지의 조정으

로 인한 대두 생산 증가로 대두 가공과 대두유 수출이 늘고 있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가공능력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남아메리카의 국가들로부터 대두를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의 바이오디젤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두유 수출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에서는 새로운 지역에서의 대두재배가 증가하여 대두유의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대두유의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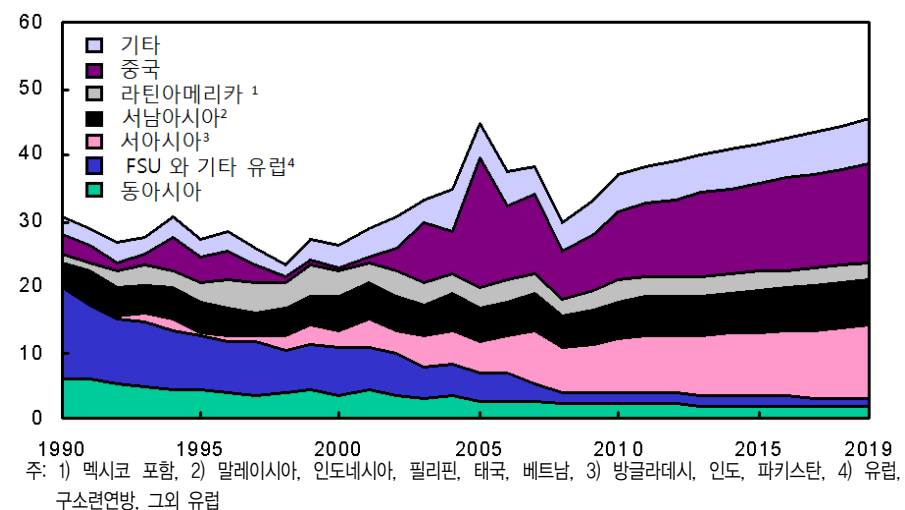
미국은 세계에서 3번째로 대두유를 많이 수출하는 국가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두유가 바이오디젤 생산에 이용됨에 따라 수출에 제약요인이 되었다. 캐나다로부터 카놀라유(Canola Oil)를 수입하고 동남아로부터 팜유(Palm Oil)를 수입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식용 기름의 공급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에서는 바이오디젤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성 기름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면화

그림 10 세계 면화 수입

단위: 백만 배일



자료: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19, February 2010.

세계 면화 교역량은 2019년까지 연간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면화 교역량은 2019년까지 연간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망 기간 말까지 2005년 수준은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2005년 Multifiber 협정(MFA) 할당량이 폐지되기 전 5년간, 면화 교역에 상당한 지리적 이동이 있었다. 세계 면화 수입의 아시아 비중은 1990년대 50% 수준에서 2009년 72%까지 증가하였

으며, 2019년에는 78% 이상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까지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로 인해 세계 면화 수입이 증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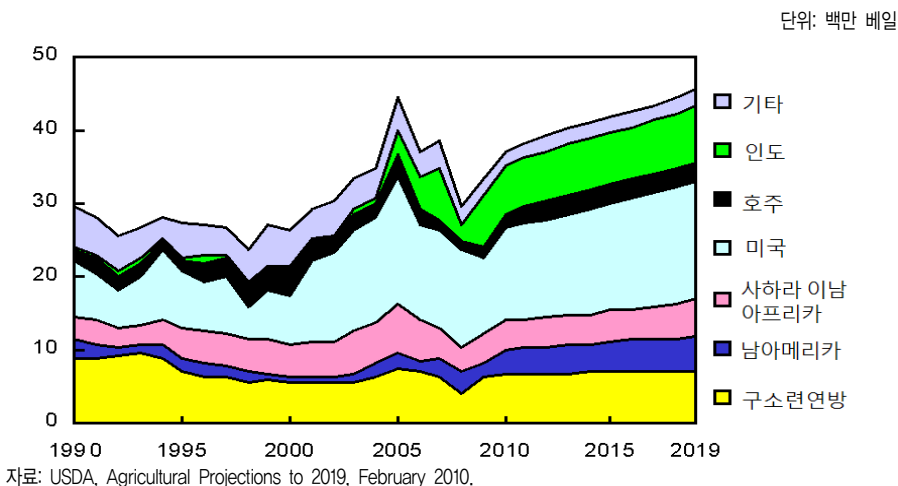
중국, 인도, 파키스탄의 직물 산업은 2005년 Multifiber 협정(MFA) 폐지 결과 발생한 직물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자이다. 베트남과 방글라데시 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면화 수입도 계속 증가하였다. 중국의 직물 산업과 면화 수입은 2019년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WTO가입 후 빠르게 성장하였던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보다는 더 완만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 간 중국은 세계 면화 수입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키스탄은 최근 주요 면화 수입국으로 떠오르고 있어, 앞으로 10년 동안 세계 두 번째 면화 수입국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만약 파키스탄의 면화 분야에서 특유한 세균의 일종인 *Bacillus Thuringiensis*(Bt) 면화 신품종의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입증되면 수입이 감소할 수도 있다.

몇 년 전까지 터키의 직물 산업은 EU와의 무역 흑자로 수익이 많았다. 그러나 Multifiber 협정(MFA) 할당량의 폐지는 다른 경쟁자들로 하여금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EU시장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터키의 면화 수입은 감소하고 있고,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U, 일본, 대만, 대한민국의 면화 수입은 직물 무역의 재편과 높은 임금으로 인해 꾸준히 감소할 전망이다. 낮은 임금과 적은 비용이 소요되는 국가들은 계속 직물산업이 성장할 것이다.

그림 11 세계 면화 수출



세계화로 인해 우수한 자원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면화 생산이 촉진

될 전망이다.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미국,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인도, 브라질과 같은 전통적인 생산국들은 이전 Multifiber 협정(MFA) 무역 때부터 면화 생산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 특히 인도가 *Bacillus thuringiensis*(Bt) 신제품인 유전자 변형 면화를 빠르게 도입하여, 면화 생산에도 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미국은 전망기간 내내 세계 최고의 면화 수출국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수출은 2019년까지 세계 무역의 35% 수준을 초과하는 1천 6백만 배일(bales) 이상(24%) 증가한다. 그러나 세계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의 40% 수준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구소련 연방(FSU)의 주요 아시아 국가들은 1990년대 초반 이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수출국이었다. 그러나 직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일부 아시아 국가의 정책은 면화 수출보다 오히려 직물 생산품의 수출을 더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수출은 지난 10년 동안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6년 이래로 낮은 세계 가격, 아프리카 금융공동체(CFA)의 확장은 서아프리카까지 낮은 생산성과 수출을 초래하였다. 아프리카 금융공동체(CFA)에 속한 14개 회원국들의 재배면적은 1994년 CFA의 평가절하 이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들 중 일부 국가는 경제발전과 *Bacillus thuringiensis*(Bt) 면화 신제품의 채택으로 생산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수출은 앞으로 10년 동안 1/3 수준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는 *Bacillus thuringiensis*(Bt) 면화 신제품을 포함한 교배종 면화를 채택한 후로, 단수가 향상되어 생산이 증가해 왔고, 최근에는 수출도 늘어났다. 단수는 교배종 면화의 재배면적이 확장되고 경작기술이 향상되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면화 생산의 증가로 인해 인도는 국내 직물 생산과 수출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의 수출 규모는 주요 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보다 커졌으며, 이러한 추세가 전망기간 동안 유지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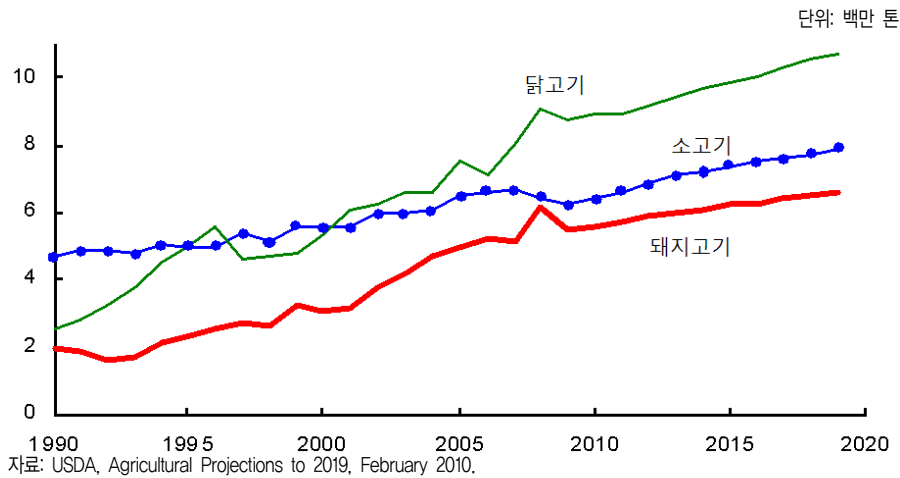
육류

육류 수출량은 최고
기 1천 5백만 톤(2.2%), 돼지고기 9십만 톤(1.8%), 가금류 1천 5백만 톤(1.9%) 증가할 전망이다.

세계 1인당 육류 소비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약 0.6%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주요 수출국의 수출량은 여전히 연간 1.8%씩 상승할 전망이다. 전망기간 동안 부류별 수출량은 쇠고기 1천 5백만 톤(연간 2.2%), 돼지고기 9십만 톤(연간 1.8%), 가금류가 1천 5백만 톤(연간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인구 증가와 1인당 소득 증가로 인해 세계 육류 수요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러시아의 육류 수입은 정부의 국내 육류 생산 증대 정책으로 전망기간 동안 완만하게 감소할 전망이다.

그림 12 세계 육류 수출



캐나다의 쇠고기 수출은 전망기간 동안 천천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구제역(BSE)이 처음 발생한 2002년 이전으로 회복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EU의 쇠고기 수출은 EU가 쇠고기 생산을 줄이고,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제한함으로써 WTO가 제한하는 수준(81만 7천 톤) 아래로 유지될 전망이다. 아르헨티나의 쇠고기 수출은 2005년 최고점에 도달한 이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쇠고기 수출세와 정책 변화로 인해 아르헨티나의 수출 경쟁력은 저하되었으나, 쇠고기 수출은 국내 생산과 1인당 소비가 늘면서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은 전망기간 동안 구제역 청정국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가정한다. 브라질의 돼지고기 분야가 확장됨으로써 돼지고기 수출은 일본과 한국 시장보다 러시아, 아시아 국가들과 같이 가격에 민감한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전망기간 동안 브라질은 가금류 생산물의 가장 큰 수출국으로의 지위를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쇠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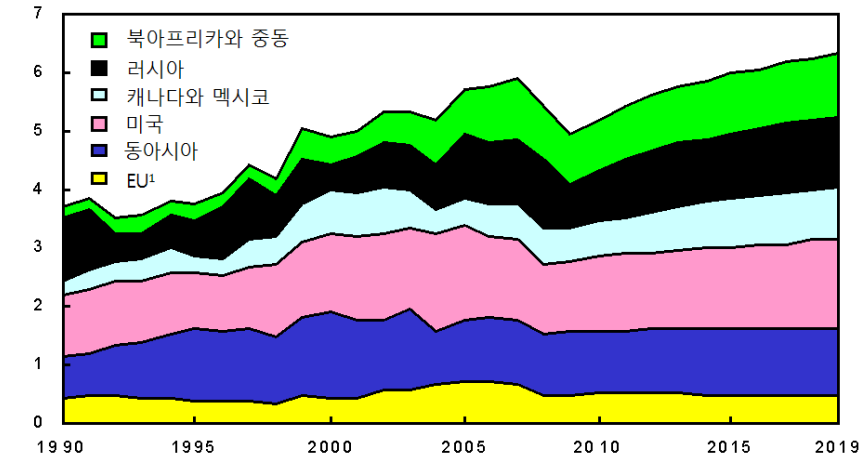
국제적인 경기악화로 인하여 2008년과 2009년의 쇠고기 수입은 감소하였다. 2008년에는 남아시아국가들과 유럽연합, 이집트의 수입이 감소했으며 2009년에는 러시아와 멕시코의 수입이 감소했다.

2010년과 2019년 사이에 쇠고기 수입은 주요 수입국이 1백5만 톤(23%) 이상 수입을 늘려 전반적으로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전통적으로 선진국은 쇠고기의 주요 수입국이었으나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의 방목으로 키운 쇠고기가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다.

쇠고기 수입은 주요 수입국이 1백 5만 톤(23%) 이상 수입을 늘려 전반적으로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그림 13 세계 쇠고기 수입

단위: 백만 톤



주: 1) EU 내 교역 불포함

자료: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19, February 2010.

러시아는 장기적으로 소비의 증가로 인하여 쇠고기 수입이 증가하여 자국 생산량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는 유럽연합과 남아메리카의 쇠고기 수출에 있어서 가장 큰 시장이다.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들은 방목하여 기른 쇠고기 수입을 꾸준히 늘릴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이들 국가에 미국산 쇠고기 수출이 향후 10년 동안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주로 방목한 쇠고기를 수입하며, 같은 쇠고기와 가공품을 만들기 위해 호주와 뉴질랜드로부터 지방이 적은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어, 앞으로 수입이 약간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쇠고기 수입이 많은 아시아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쇠고기 수출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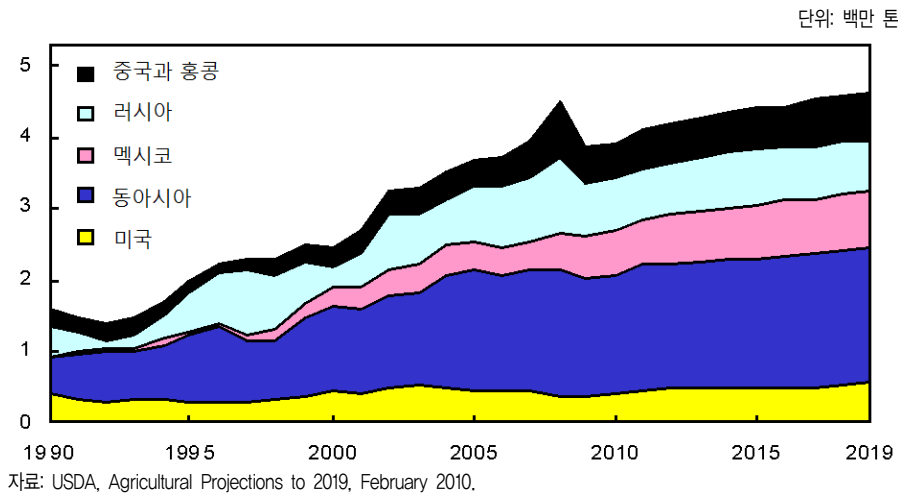
멕시코의 쇠고기 수입은 2010년부터 다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의 수입에는 미국의 곡식으로 키워진 쇠고기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돼지고기

전망기간 동안 돼지고기 수입은 70만 톤 이상 증가하여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돼지고기의 수입은 2008년 급격히 증가하다가 2009년 세계경제 위기로 인하여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 및 이전 구소련 연방(RSU), 중국, 일본, 한국에서 최대 규모의 수입 감소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망기간 동안 돼지고기 수입은 70만 톤 이상 증가하여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그림 14 세계 돼지고기 수입



멕시코는 세계 돼지고기 수출에서 가장 크게 성장하는 시장 중 하나이다. 소득과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돼지고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전망기간 동안 19만 톤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멕시코는 향후 10년 동안 세계의 돼지고기 무역에 있어서 전체의 1/4 수준까지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시아의 일부 소득이 높은 국가들은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정부위의 돼지고기 수입을 늘리고 있다. 일본은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돼지고기 수입국이었으나 현재보다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지는 않는다. 한국은 아시아지역에서 돼지고기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로, 전망기간동안 세계 돼지고기 수입의 1/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돼지고기 생산은 2007년 돼지질병으로 인하여 대폭 감소하였으며 2008년에는 소규모 수입이 이루어졌으나 2008년 다시 생산을 재개하여 2009년에는 소규모 수출이 되었다. 향후에도 돼지고기 생산은 증가할 전망이며, 거의 대부분 자국에서 소비되고 소규모의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의 돼지고기 수입은 향후 10년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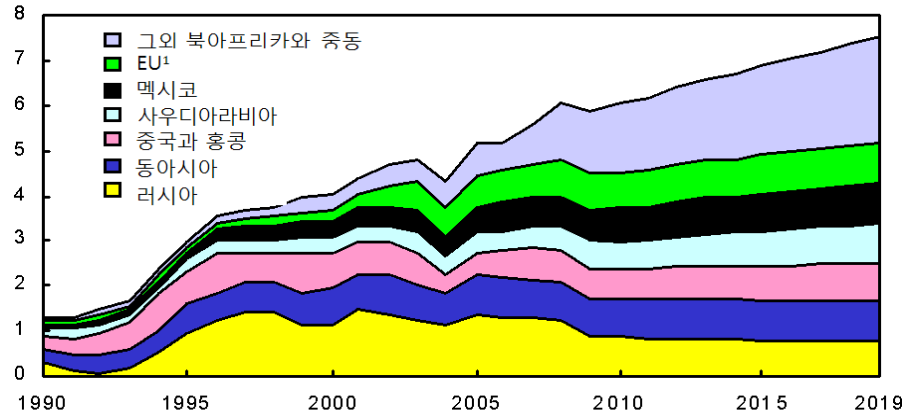
가금류

가금류의 수입은 주요 수입국들로 인해 세계적 경기 불황에도 감소하지 않았으며 전망기간동안 약 1백 5십만 톤(2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소련 연방(FSU)과 유럽, 일본을 제외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금류의 수입은 강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가금류의 수입은 세계적 경기 불황에도 감소하지 않았으며, 전망기간동안 약 1백 5십만 톤(25%)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그림 15 세계 가금류 수입

단위: 백만 톤



2010~2019년까지의 세계 가금류 수입량 증가의 주된 원인은 주요 수입국인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북아프리카의 일부 국가의 인구 증가와 소득 상승에 따른 수요 급증 때문이다. 한편, 여러 국가에서 동물 관련 질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해당 국가의 생산량 증가폭 둔화와 수입량 증가가 예상된다.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캐리비안 지역에서는 소득 증가로 인하여 가금류 수요와 수입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이 지역의 가금류 가격은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비해 가격이 낮아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10~2019년까지 멕시코의 국내 가금류 생산은 증가하지만 소비 증가율보다는 낮고, 수입량은 18만 톤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가금류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여전히 세계 최대 수입국이다. 러시아는 정책적으로 TRQ 제한과 국내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소득과 1인당 가금류 수요 증가율이 크지 않기 때문에 수입은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생산이 제한적이고, 1인당 소비는 증가하여 향후 10년간 수입이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과 중국 등의 가금류 주요 수출국들은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완전조리식품으로 수출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리식품은 생산비용이 높아져 아시아, 유럽, 중동 등의 선진국을 대상으로 수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가금류 소비가 증가하면서 국내 생산이 증가하고, 수입과 수출도 각각 15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19, February 2010.